



#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일깨워주고 싶어”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활자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을 매개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다는 뜻도 담겨 있다. ‘글을 쓰듯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 글을 쓴다’는 말은 예에서 연유한다. 글을 쓰고 직접 그림을 그려 책을 발간한 이가 있어 화제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안영옥 동화작가는 최근 그림책 ‘내 친구는 어디에?’ (박복)를 펴냈다. 안 작가는 “무식이 용감을 부른다”는 말로 자신을 낮췄지만 작품에서는 간단치 않은 ‘내공’이 느껴진다. 그림책은 산뜻한 색감에 따뜻함이 인상적이다. 단순하지만 세밀한 선과 부드러움이 느껴져 처음 그림책에 도전하는 이의 작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안영옥 작가

##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안영옥 작가 ‘내 친구는 어디에?’ 펴내 직접 글 쓰고 그림까지…“동화는 나의 삶, 일상에서 모티브 찾아”

길을 나서며 겪게 되는 일들을 다뤘다. 달팽이는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달팽이에 대한 관심이 없고 꿀벌이나 일개미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꿀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개미는 때로 몰려와 민달팽이 위에 올라타 못살게 군다. 민달팽이는 ‘살려 달라’ 소리치지 않고 개미 때리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때마침 소나기가 내려 개미 때리는 달아나고 민달팽이는 겨우 어려움에서 빠져나온다. 몇날 며칠 끔찍한 민달팽이는 비로소 자신과 비슷한 달팽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 작가는 “비단 민달팽이가 아니라도 마음속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세상 떠올라지는 것은 그만큼 오늘의 삶이 각박하고 정이 메말랐다는 방증일 테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작가의 말에서 작품의 지향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그림까지 그렸기에 창작하는 데 훨씬 이점이 있을 듯했다. 서사를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구실이 장점입니다. 작가가 그

림을 그리게 되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더 강해져 몰입도가 크다고들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글과 그림 속에 작가 한 사람의 성향이 지나치게 고스란히 배어나는 점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림책동화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글보다 그림이 우선이라 지나치게 글로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등단 전에는 꿈속에서도 동화를 쓸 만큼 아동문학에 빠져 있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꿈속 이야기를 노트에 채웠던 기억은 여전히 새롭다. “지금 들춰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글이지만” 동화에 대한 열정과 마음만큼은 순수했던 것 같다.

안 작가는 동화 창작 외에도 지금까지 문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금초문화회,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광일문화회(광주일보신춘문학회) 등에 참여를 했으며 광주시문인협회 기관지 ‘광주문학’에서 편집위원과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들을 만나왔으며 어린이 눈높이 강사를 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산강에서 만나는 남도 역사·문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대학 개설 강좌

설화와 전설은 지역적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 구전문화 가운데 하나다. 영산강 유역에는 다양한 설화와 전설, 민담이 존재한다. 영산강을 따라 흐르는 설화와 전설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소스 일 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근원이기도 하다



김경수



김선태



이옥희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박물관대학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마련한 제28기 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박물관)이 그것. 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세미나실에서 강좌를 연다. 주제는 ‘영산강에서 만나는 남도 역사·문화’.

강좌는 무료이며 수강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80명) 강좌는 모두 8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강의의 마지막 시간은 경남 창원군 일대 낙동강 문화유적을 다녀올 예정이다. (참가비 별도)

먼저 첫 강의는 30일 강봉룡 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장이 ‘바다로 통하는 길, 영산강 유역의 대외교류-마한에서 고려까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강 소장은 마한시대 신창동 유적의 농경문화와 아울러 영산강 유역의 웅관고분사회로 대표되는 고대문명을 모티브로 통일신라와 고려에 이르는 다면적인 대외교류를 조명할 예정이다.

4월 6일에는 기세규 광주유학대학교 교수가 ‘영산강의 풍류와 맛’을 주제로 강의하며 13일에는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 소장

이 ‘영산강의 수운과 경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설화와 전설을 매개로 한 강의도 있다. 이옥희 남도학연구소 이사는 ‘강을 따라 흐르는 남도의 설화와 전설’ (20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변남주 국민대 교수는 ‘소통의 공간, 영산강의 뱃길과 장사’ (27일)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5월 5일에는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영산강과 하구 갯벌 지역의 어업 유산’을 모티브로 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김 소장은 간석지 개간과 하구둑 건설로 변해버린 영산강이 가졌던 원래의 경관과 지역성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박태후 전 호남대 교수는 ‘한국정원의 정체성과 영산강 문화’ (11일)를, 시인인 김선태 목포대 국문과 교수는 ‘영산강의 문화와 노래’ (18일)를 주제로 다양한 문학작품과 노래에 얽힌 서사를 풀어낼 예정이다.

마지막 25일에는 우포늪, 교동 고분군, 진흥왕 척경비 등 경남 창원 일대 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강의가 열리는 마한유적체험관은 지난해 12월 신창동에 새로 개관한 문화시설로 역사민속박물관 본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62-954-679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고 있는 윤종호 작가의 ‘리틀포레스트’ 전.

# 호기심 천국 ‘리틀 포레스트’ 전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8월27일까지 윤종호 작가 초대전

윤종호 작가가 전시장에 꾸며놓은 작은 숲에 들어선다.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대형 꽃과 실제 푸른 식물이 어우러진 공간에선 편안함이 느껴진다. 무렵 해동문화예술촌이 소동동 갤러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리틀 포레스트’ 전(8월27일까지)을 열고 있다. 해동문화예술촌은 아이들이 흥미롭게 전시를 관람하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작가를 선정, 예술참여형 전시를 열고 있다.

윤종호 작가가 ‘리틀 포레스트’를 주제로 펼치는 이번 기획전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기분 좋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다.

전시에서 만나는 알록달록한 꽃은 건축용 재료로 사용하는 우레탄폼으로 제작했다. 땀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어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 또 꽃과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늘 함께하는 나비 등 곤충도 우레

탄폼과 철판으로 만들었다.

전시장에 조성된 좁게 난 사잇길을 걷다보면 푸른 기운을 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 만나며 전시장에 걸린 영상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흐른다.

전시장에는 아이들이 들어가 쉴 수 있는 인디언 텐트도 갖춰 놓았으며 전시장 앞의 포토존도 눈길을 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인공물에 생명을 심어 친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탄생시키는 숲을 바라보며 각자의 ‘리틀 포레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한 윤 작가는 지난 2017년부터 정원에 숲 작업도 함께하고 있으며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매주 월요일 휴관.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정원(왼쪽)·이주형

## 지매판, ‘코드로 그린 그림’ 오늘 이주형·이정원 강연

최근 생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예술과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코딩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와 예술가의 역할을 탐색해 보는 강연이 열린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15일 오후 3시 미디어 라운지에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스타트업체 ‘페블러스(Pebblous)’ 이주형, 이정원 공동창업자를 초청, ‘코드로 그린 그림: 예술가의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강연을 개최한다.

20년 이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연구를 진행한 이주형 대표는 ‘코드로 그린 그림’을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으며 2020년 대전 비엔날레 작가로 초대되기도 했다. 이정원 부대표는 ‘생각의 기원’ 번역서를 출간했으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과학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인재 회원 작품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사진전, 18일까지 학생교육문화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사진반 여덟번째 전시회가 오는 1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기우경·김민호·박병봉·안미숙·이나미·이만재·이유경 등 27명의 회원이 참여해 풍경, 인물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컬러 사진의 화사함과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한 흑백사진이 어우러져 색다른 전시장 풍경을 연출한다.

회원들이 카메라 앵글에 담은 피사체는 다채롭다. 김성열 회원은 어둠 속에서 바라본 바다와 빛의 흔적들을 담았고, 김형미 회원은 해질녘 하늘과 구름이 함께 만들어진 불새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인재 회원은 화면 가득 커다란 나무를, 홍석례

회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마늘과 그곳의 사람들을 촬영했다.

회원들은 또 고즈넉한 산사와 불어름가을겨울 사계절의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도 선보인다. 좁게 난 ‘창’으로 내어다본 것들의 모습은 따뜻함을 전한다.

사실적인 풍경이나 인물 작품과 더불어 특정 오브제를 화면에 배치해 세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이나 추상·느낌의 작품은 사진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수업을 진행한 박찬호 작가는 “사진은 보이는 세계를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의미나 감성을 발산하고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둘 사이를 파고 들었을 때 세계는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